



수에즈 운하청, 2년 연속 운하 통항료 인상

내년 3월15일부터 선형별 평균 3% 정도



수에즈 운하청(SCA : Suez Canal Authority)은 2006년 3월15일 발효로 수에즈 운하의 통항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통항료는 컨테이너선과 탱커 등 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인상액은 3% 정도가 된다. SCA는 운하

의 유지관리와 확장 공사를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SCA는 VLCC에 대해서 20%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는 금년 2월에도 통항료를 인상하였다.

수에즈 운하의 2005년 운항척수는 1만8,000척으로, 통항료 수입은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의 통항료 수입 31억달러에 비해 9.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통항료 수입 중 52%가 컨테이너선, 22%가 탱커이다.

이번 통항료 인상에 대해 SCA 임원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세계 해상무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기선사는 연료유와 용선료의

상승, 내륙철도와 트럭운송비 등의 증가로 수익 압박을 받고 있다. 북미 항로에서는 파나마운하 통항료도 인상되어, 동서 양 운하가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선사의 비용 부담은 한층 더 늘어나게 되었다.

프랑스 CMA-CGM, TSA 내년 1월2일 탈퇴

프랑스 정기선사 CMA-CGM은 12월 2일자로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을 탈퇴한다고 통보했다. 협정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 사전통고가 필요하므로 탈퇴일은 내년 1월2일 이후이다.

CMA-CGM은 아시아-미국항로의 물동량이 크지 않다. JOC-PIERS에 의하면, 2004년의 북미항로의 물동량은 3% 정도로 태평양항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미국항로를 관할하는 TSA 가입선사는 현재, APL, CMA-CMG, COSCO, 에버그린, 한진해운, 하팍로이드, 현대상선, K-Line, MOL, NYK, OOCL, Yangming 등 12개 사이다.